

## 吳漁山の『寫憂集』研究\*

최낙민\*\*

###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吳漁山の 前期 詩作과 『寫憂集』
3. 吳漁山の 근심
  - 1) 亡國之憂
  - 2) 哀民之憂
  - 3) 生活之憂
4. 나오는 말

### 【초록】

吳漁山은 ‘虞山書派’의 한 사람으로 ‘清代六家’라 불린 저명한 화가였고, ‘虞山詩派’의 일원으로 시인으로서도 상당한 문명을 가졌다. 錢謙益의 가르침을 좇아 ‘博學’과 ‘詩史’의 정신을 계승한 오어산은 만주에서 일어난 이민족이 한족의 왕조를 뒤엎는 전란의 시기를 만나 常熟과 江南의 강과 바다를 떠돌며 자신이 보고들은 일들을 시로서 기록하고자 하였다.

본고는 오어산의 전기 시를 전하고 있는 『寫憂集』 중에서 위급한 시대를 만나 ‘근심을 적는다’라는 詩集名에 부합하는 시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그가 탄식하고 근심한 바가 무엇이었는지, 시로서 기록하고 알리고자 한 바가 무엇이었는지 미루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寫憂集』에 수록된 시를 ‘亡國之憂’, ‘哀民之憂’, ‘生活之憂’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또한 오어산의 시는 사회와 시대를 그려내고 투영했던 두보의 ‘詩史’의 전통을 계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농사 지으며 부지런하게 살아가며 자신의 생활을 진실 되고 평담한 어투로 소묘하듯 표현해낸 도연명의 태도를 결합하려고 노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키워드】 吳漁山, 『寫憂集』, 詩史, 亡國之憂, 哀民之憂, 生活之憂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8-361-B00001)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재연구소 HK교수 (qiushui@kmou.ac.kr)

## 1. 들어가는 말

吳漁山(1632-1718)<sup>1)</sup>은 江蘇 常熟 출신의 화가들이 중심이 된 ‘虞山畫派’의 한 사람으로 ‘四王’<sup>2)</sup>, 惲壽平和 함께 ‘清代六家’라 불린 저명한 화가였고, 錢謙益을 영수로 하는 ‘虞山詩派’의 일원으로 시인으로서도 문명이 높았으며, 서양으로부터 전래된 천주교를 받아들여 예수회 신부가 된 특이한 이력을 가진 인물로도 유명했다.

오어산이 활동하던 청나라 초기 시단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晚明을 답습하였고, 雲間波, 虞山派, 婁東派로 삼분되어 있었다. 당시 전겸익과 吳偉業이 영도하는 우산파와 루동파는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내었고 영향력도 가장 컸다.<sup>3)</sup> 전겸익에게서 시를 배우고 오위업과도 긴밀한 교왕을 가졌던 오어산은 평생 동안 적지 않은 시를 창작하였다.

오어산의 생애와 시 창작활동은 마카오에서 예수회에 입회하고, 修道者의 길을 걷기 시작한 1682년을 중심으로 전후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후반기의 생이 신의 부르심을 받고 교리와 전례를 배우고 익히며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 참사랑을 실천하는 목자로서의 삶이었다면,<sup>4)</sup> 그의 전반기 생은 명의 유민으로서 끝까지 절개를 지킨 가난한 화가로서, 시인으로서의 삶이 주조를 이루었다. 전겸익의 가르침을 좇아 ‘博學’과 ‘詩史’의 정신을 계승한 그의 전기 詩作 활동은 화가로서의 유명세에 가렸고, 새롭게 수용한 기독교의 교리와 전례, 예수회의 성인들을 숭찬한 聖學詩 창작을 중심으로 한 후기 시작 활동은 예수회에 입회하여 신부가 되었다는 사실에 묻혔다.<sup>5)</sup>

오어산의 전반기 생애는 끊이지 않는 전란 속에 지나갔다. 피바람이 몰아치고 血雨가 땅을 붉게 적시는 왕조교체의 대격변기를 살았고, 鄭成功的 남경공략 실패 후 ‘反清復明’ 활동의 열기가 사그라들고 獄事와 文字獄 등 청 조정의 고압적인 문화정책이 강화되던 시절 시작 활동을 했던 오어산은 “시절의 위급함을 詩史로 논하기 쉽지 않다”<sup>6)</sup>고 토로하였다. ‘詩史’란 말은 “杜甫가 安祿山の 난리를 만나 隴蜀 지방을 떠돌며 시에다 이때 일을 진술하였다. 본 바를 미루어 숨겨진 것에 이르기까지 거의 남김없이 서술하였으니, 당시에 이를 일러 詩史라 하였다”<sup>7)</sup>라는 孟啓의 언급에서 비롯되었다. ‘시사’란 시로 쓴 역사란 말이니, 오어산은 만주

1) 吳漁山の 幼名은 季歷이었고 避諱하여 歷이라 하였다. 字는 漁山이고, 살고 있는 고을에 言自墨井이 있어 號를 墨井道人이라 하였다.

2) ‘四王’이란 청나라 초기 南宗畫 풍의 그림을 그렸던 王時敏, 王鑒, 王翬, 王原祁를 말한다.

3) 袁行霈主編, 『中國文學史』, 高等教育出版社, 1998, p.256.

4) 오어산의 수도자 생활에 관한 내용은 줄고 「吳漁山の 죽음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고찰 - 해항 도시 마카오에서의 생활을 중심으로」(『해항도시문화교섭학』, 제14호, 2016.04.)와 「예수회 신부 吳漁山の ‘十年海上’ 사목활동과 天學詩 고찰」(『中國學』, 제59집, 2017.06.)을 참고 바람.

5) 오어산의 후기 詩作 활동에 관해서는 줄고 「吳漁山の 『三巴集』에 나타난 天學詩 연구」(『中國學』, 제54집, 2016.03.)와 「吳漁山の 『三餘集』에 나타난 天學詩 연구」(『中國學』, 제62집, 2018.03.)를 참고 바람.

6) 『寫憂集』, 「同陳南浦過橫塘」: “橫塘西去路微茫, 鷓首看山喜欲狂. 兩岸流雲春雨亂, 群峰飛雪野花香. 時危不易論詩史, 世醉寧知飲蔗漿. 愛此一方煙水闊, 後期垂釣送斜陽.” 본문에서 사용한 오어산의 시와 관련 자료는 吳歷 撰, 章文欽 箋注, 『吳漁山集箋注』(中華書局, 2007)에서 인용하였다. 이하 자세한 서지사항은 생략한다.

에서 일어난 이민족이 한족의 왕조를 뒤엎는 전란의 시기를 만나 常熟과 江南의 강과 바다를 떠돌며 자신이 보고들은 일들을 시로서 기록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어산의 전기 시는 『桃溪集』, 『從遊集』, 『寫憂集』에 주로 수록되었다고 하지만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작품집은 『寫憂集』 뿐이다. 『寫憂集』에는 「題畫詩」 40수를 포함 총 138수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본문에서는 위급한 시대를 만나 ‘근심을 적는다’라는 詩集名에 부합하는 시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오어산이 걱정하고 근심한 바가 무엇이었는지, 시로서 기록하고 알리고자 한 바가 무엇이었는지 미루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금까지 전해지는 각 시집의 序를 통해 오어산의 사람됨과 함께 그의 전기 시의 풍격을 유추해 볼 것이다. 그리고 그의 작품을 ‘나라 잃은 근심’을 표현한 시, 科場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사대부로서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근심’한 시, ‘개인의 삶의 근심’을 표현한 시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 2. 吳漁山の 前期 詩作과 『寫憂集』

虞山을 主山으로 하고 동북쪽으로 長江을 마주한 常熟은 이름처럼 언제나 물산이 풍부하고 교통이 발달한 吳越文化의 본향으로, 출중한 화가들을 많이 배출한 ‘畫家之鄉’으로 알려져 있다. 元 至正年間に 활동하며 웅대한 자연의 골격을 잘 표현하고, 수묵의 농담을 이용한 세밀한 표현이 조화를 이루어 南宗畵의 표현형식을 완성했다고 평가 받는 黃公望이 ‘虞山畵派’의 ‘開祖’라 불린다. 어려서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오어산은 15세를 전후하여 같은 마을의 동갑내기 王翬(1632-1717)와 함께 王時敏(1592-1680)을 찾아 사사하였고, 두 사람 모두 약관의 나이로 畵壇의 인정을 받았다. 이후 그림에 전력한 왕휘는 ‘虞山派’의 ‘開山之父’라 불렸고, 陳瑚(1613-1675)를 좇아 義理之學을 배우고 陣岷에게서 琴을 배운 오어산은 뒷날 중국 천주교 역사에 있어 ‘詩書琴畵’에 두루 뛰어났던 유일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sup>8)</sup>

청나라 초기, 오어산의 고향 상속은 그림뿐만 아니라 錢謙益(1582-1664)<sup>9)</sup>이라는 걸출한 시인을 영수로 하는 ‘虞山詩派’의 본거지이기도 했다. 公安派의 性靈說에 기반 하여 명대 前後七子의 복고와 모의의 주장에 반대하고, 竟陵派의 기벽함과 천박함을 비판하고, 고인의 장점을 배울 것을 주장한 전겸익,<sup>10)</sup> 그의 제자 馮舒, 馮班, 瞿式耜와 집안 손자 錢曾과 錢陸燾, 吳歷(漁山) 등이 우산시파에 속한다. ‘擬古’에 반대하고, ‘學古’를 주장하여 학문과 성정을 작시의 근본으로 삼을 것을 강조한 전겸익에게서 시를 배운 오어산은 적지 않은 시편들을 창작하였다.

7) [唐]孟榮, 『本事詩·高逸』: “杜逢祿山之難, 流離隴蜀, 畢陳於詩, 推見至隱, 殆無遺事, 故當時號爲詩史.”

8) 方豪, 『中國天主教史人物傳』(中冊), 中華書局, 1988, p.202. 李杕, 「墨井集序」: “虞山墨井道人吳漁山先生, 明琴樂, 工詩詞, 精書法, 善繪畫, 四者皆絕.”

9) 錢謙益은 자가 受之, 호가 牧齋이며, 江蘇 常熟 사람으로 오어산과 동향이다. 명말의 정치결사 東林黨의 지도자였으며, 南明 福王 아래서 禮部尙書를 지낸 錢宗伯이라고도 불렸다.

10) 張少強, 『中國文學理論批評發展史』(下卷), 北京大學出版社, 1995, p.280.

漁山の 시는 네 권의 시집으로 나누어져 있다. 『桃溪集』은 錢牧齋(錢謙益)과 唐半園(唐宇昭)가 서를 적었고, 『從遊集』은 陳確庵(陳瑚)가 서를 적었다. 『寫憂集』은 余澹心(余懷)가 서를 적었고, 『三巴集』은 宋既庭(宋實穎)이 서를 적었다. 전체를 합쳐서 『墨井草堂詩』라 하고 陳客園(陳玉璣)가 서를 적었다.<sup>11)</sup>

이 가운데 오어산이 예수회에 입회하기 전 ‘詩書琴畫’의 스승들을 좇아 배우고, 명의 유민임을 자부하는 벗들과 교류하며 망국의 통한과 시대의 고통과 근심을 적은 시편들은 『桃溪集』, 『從遊集』, 『寫憂集』에 수록되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것은 『寫憂集』 뿐이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각 시집의 序를 통해 오어산의 사람됨과 함께 그의 시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평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桃溪集』에 관해 살펴보자. 오어산 연구의 시작을 알린 陳垣선생은 『桃溪集』은 그가 30세 전에 지은 시를 모은 것이라고 하였다.<sup>12)</sup> 桃溪는 오어산의 집 뒤를 감싸고 흐르는 작은 시내로, 집 앞의 墨井과 함께 그가 평생 고향 常熟을 떠올리는 매개였고, 上海에서 善終을 준비하던 시절에도 언제나 잊지 못하는 마음의 고향이었다.<sup>13)</sup> 順治 17年(1660), 우산시과의 영수 전겸익은 同里的 제자를 위해 「桃溪詩稿序」를 적었다.

어산은 그림을 잘 그렸을 뿐만 아니라, 시에 있어서도 특히 뛰어났다. 그의 詩思는 맑고 詩格은 노숙하여, 시를 짓는 것이 精妙한 정도에 이르렀다. 대저 그림을 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붉은 칠을 하고 분칠을 하며 지금 사람들과 아름다움을 다투고자 하지 않았다.<sup>14)</sup>

전겸익이 이야기 한 “非欲以塗朱抹粉爭妍于時世者”는 바로 그가 제창했던 ‘有本’을 강조하고, 내용을 강조하며, 참된 성정을 토로할 것을 강조하는 시가창작태도이며, 시가 내용에 대한 우산과의 총 강령이라 할 것이다.<sup>15)</sup> 오늘날 『桃溪集』이 전하지 않아 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지만, 제목을 통해 상숙에서 생활하며 전겸익을 좇아 시를 학습하던 오어산이 왕조가 교체되고, 만주족과 한족 간의 민족갈등이 빚어졌던 혼란한 시절에 대한 감회들을 토로한 것들이 주선율을 이루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전겸익으로부터 그림은 元明의 화단을 대표하던 황공망과 沈周를 보는 듯하고, 시는 ‘思清格老’하다는 높은 평가를 받은 오어산은 20대 후반 이미 詩·畫壇에서 확고한 지위를 갖게 되었다.

전겸익은 오어산이 당시의 사람들과 달랐다고 했지만, 언급한 내용이 간략하여 그 구체적 내용을 엿보기 힘들다. 그러나 강희 7년(1668) 오어산보다 서른 살이나 많았지만 그와 忘年之

11) 孫原湘, 「桃溪從遊集合冊跋」: “漁山詩分四集, 曰桃溪集, 錢牧齋唐半園序之, 曰從遊集, 陳確庵序之, 曰寫憂集, 余澹心序之, 三巴集, 宋既庭序之. 總名曰墨井草堂詩, 陳客園序之.”

12) 陳垣, 「『墨井集』原流考」, 『吳漁山(歷)研究論集』(周康燮主編), 崇文書店, 1971, p.29.

13) 『三巴集』, 「七十自詠」其三: “甲子重來又十年, 飄然久不去琴川. 堂前墨井水依在, 屋後桃溪花自妍. 懶讀有孫應長大, 廢耕無役少煩煎. 兩兒如願隨修業, 卻愛傳家道氣全.”

14) 錢謙益, 『牧齋有學集』卷48, 「桃溪詩稿序」: “漁山不獨善畫, 其於詩尤工. 思清格老, 命筆造微, 蓋亦以其畫爲之, 非欲以塗朱抹粉爭妍於時世者.”

15) 馬衛中, 「桂枝未遂知衙恨詩草空遺泪眼看——吳歷詩漫論」, 『常熟理工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 2009, 第7期, p.84.

交를 가졌던 唐宇昭가 남긴 「桃溪集序」에는 그의 사람됨과 시의 풍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다.

나는 오랫동안 어산의 이름을 들었지만, 그의 그림을 보지 못했다. 보고난 후에야 그의 그림이 宣和와 至正年間の 풍격을 가졌음을 알았다. 나는 어산의 그림을 보았지만 그의 사람됨을 보지 못했다. 본 후에는 그 사람이 永和와 義熙의 풍격을 지녔음을 알았다. 나는 어산의 사람됨을 보았지만 그의 시를 보지 못하였다. 시를 접한 이후 그의 시는 開元과 元和의 풍격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대저 어산은 단아하여 그 그림과 시에 능함을 자랑하려 하지 않았다. 때문에 차례차례 그를 살펴보았고, 본 이후에야 그를 알게 되었으니, 어산은 오늘날의 사람이 아니다. …… 우연히 나에게 『桃溪集』을 보여 주었는데, 전경익이 누차 완상하고 칭찬하여 서를 적은 것이었다.<sup>16)</sup>

당우소는 오어산의 사람됨은 王羲之가 「蘭亭集序」를 적었던 東晉의 永和年間(345-356)과 陶淵明이 주로 활동했던 義熙年間(405-418)에 살았던 현자들의 풍도를 지녔고, 그림은 궁정 畫院이 가장 번성했던 北宋 徽宗 宣和年間(1119-1125)과 ‘虞山畫派’의 개조 黃公望과 倪瓚 등이 활동했던 元 至正年間(1341-1368)의 풍격을 가졌다고 했다. “漢魏의 風骨이 晉宋에는 전해지지 않았고”<sup>17)</sup>, “晉宋의 ‘淸談’은 성인의 학문을 따를 줄 몰라서 의리에 안주하지 않거나, 호기를 부리고 허세를 떨어 나라를 망치고서도 스스로 그 잘못을 모르니, 전혀 교화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sup>18)</sup>는 중국과 조선의 정통학자들과 달리 오어산은 晉宋의 명사들과 원말의 화가들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방하였다.

晉宋의 인물들은 그 뜻이 술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술에 의탁하여 시대의 괴로움을 잊고자 한 것이다. 원말의 인사들 또한 그림 그리는 일을 빌어 세속적인 명성을 추구하지 않았고, 유유 자적하며, 숲과 샘을 벗하여 늙어가고자 한 것이다.”<sup>19)</sup>

오어산은 會稽山 陽蘭渚에 모였던 謝安이나 支遁, 전원으로 돌아간 도연명과 같은 晉宋대의 인물들이 술로 세월을 보낸 것은 결코 술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元四大家’들이 그림에 몰두한 것 역시 결코 명성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는 만주족이 세운 청의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신이 벼들과 어울려 酒會를 열고, 滿人의 科場에 나서지 않고 그림을 그려 삶을 이어나가는 것은 망해 버린 명 왕조에 대한 절개를 지키기 위함이며, 혼란한

16) 唐宇昭, 「桃溪集序」: “余久耳漁山之名, 而未見其畫也. 見而後知其畫宣和也, 至正也. 余見漁山之畫而未見其人, 見而後知其人永和也, 義熙也. 余見漁山之人而未見其詩也, 見而後知其詩開元也, 元和也. 蓋漁山雅不欲誇其畫與詩之能, 故次第而見, 見而後知之也, 漁山非今之人也. …… 偶示余以『桃溪集』, 則牧翁之所亟賞而贊述之者也.”

17) 陳子昂, 「與東方左史虬修竹」: “漢魏風骨, 晉宋莫傳.”

18) [朝鮮]鄭介清, 『愚得錄』, 「東漢晉宋所尚不同說」: “晉宋淸談, 視之謀利, 則其氣岸, 亦足以矯情鎮物. 其未知從事於聖學, 而不循義理之安, 張皇意氣之發, 以至於亡人之國而不自知其爲非也, 則亦無補於世教也較然矣.”

19) 『墨井書跋』 46: “晉宋人物, 意不在酒, 托於酒以免時艱. 元季人士, 亦借繪事以逃名, 悠然自適, 老於林泉矣.”

시대를 피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함이지 결코 화가로서의 명성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피력한 것이다.<sup>20)</sup>

당우소는 오어산의 시와 관련하여 李白과 杜甫, 元稹과 白居易가 활동하던 開元(713-741)과 元和年間(806-820)의 시풍을 가져, 당시 사람들보다는 고인들의 풍도에 가까운 인물이라 칭찬하였다. 전겸익은 박학을 강조하면서도 주로 두보의 시를 배울 것을 주장하였는데, 실령 두보의 시를 배운다고 하더라도 “배우지 않는 것이 없어야 하되, 그 가운데 버리지 않는 것이 없어야 한다(無不學無不捨焉)”<sup>21)</sup>고 하였다.<sup>22)</sup> 스승의 가르침을 좇아 박학과 함께 ‘詩史’의 정신을 계승한 오어산은 두보의 시제를 빌어 시를 짓고,<sup>23)</sup> 두보의 시를 그림으로 형상화하였다.<sup>24)</sup> 또한 두보보다도 더욱 철저히 사회문제들을 파헤치고, 더욱 민중생활에 접근한 백居易<sup>25)</sup>와 원진의 ‘元化體’를 모범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從遊集』에 관해 살펴보자. 오어산의 시 창작에 큰 영향을 준 또 다른 인물은 명의 유민으로 끝까지 절개를 지키고, 시에서도 상당한 성취를 이룬 유학자 陳瑚였다. 오어산은 28세를 전후하여 진호를 좇아 ‘義理之學’을 배우는 입실제자가 되었다. 康熙 元年(1662) 모친상을 당한 오어산은 효를 다한 이후, 스승을 모시고 자주 吳興을 여행하였다. 강희 3년과 4년에도 스승을 좇아 오흥을 여행하면서 이르는 곳마다 시를 주고받으며 다수의 시를 지었다. 이에 스승은 제자 오어산의 시를 선별하여 『從遊集』을 엮고 서를 적어 주었다.

錢謙益이 『桃溪詩稿』를 평하여 이르길, “어산은 그림을 잘 그렸을 뿐만 아니라, 시에 있어서도 특히 뛰어났다. 그의 詩思는 맑고 詩格은 노숙하여, 시를 짓는 것이 정묘한 정도에 이르렀다. 대저 그림을 그리는 선비 가운데 고서를 탐독하지 않고, 문장을 연마하지 않고 그림에 뛰어난 자는 없었다. 어산은 고인의 ‘六要六長’을 장악하고, 風雅를 자세히 체득하였으며, 나아가 고대 여러 저명 화가의 장점을 갖추게 되었으니, 누가 그와 필적할 수 있을까!”라고 하였다. 대저 宗伯이 어산의 시에 서를 적음에, 그의 그림을 취함이 이와 같았다.<sup>26)</sup>

스승은 먼저 깨끗하고 맑은 성품을 가진 제자가 고서를 탐독하고 문장을 잘 지어 학문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뜻으로 능히 나를 따를 자는 어산이 아닌가 생각한다(意能從我者, 其漁山也與)”고 호언하였다. 또한 전겸익의 평가를 직접 인용해 제자가 시화에도 뛰어났음을 드러내고, 王維에 필적할 만큼 시와 그림에 모두 뛰어났다고 칭찬하였다. 이를 통해 오어산은 시단의 맹주 전겸익으로부터 찬사를 받은 화가로서, 시인으로서의 명성뿐만 아니라 정주이학에도 상당한 조예를 가진 인물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 『寫憂集』, 「繪畫詩」: “古人能文, 不求薦舉; 善畫, 不求知賞. 曰: 文以達吾心, 畫以適吾意.”

21) 錢謙益, 『初學集』卷32, 「曾房仲詩序」.

22) 金智英, 「錢謙益 詩 연구」, 『中國語文學論集』, 第106號, p.235.

23) 주 44) 참고 바람.

24) 章文欽箋注, 『吳漁山箋注』卷六 「書跋補遺」; 「題寫杜少陵詩意軸」, 「杜少陵詩意圖跋」 등.

25) 金學主, 『中國文學史』, 新雅社, 1992, pp.286-287.

26) 陳瑚, 「從遊集序」: “錢牧齋宗伯題其『桃溪詩稿』曰: ‘漁山不獨善畫, 其於詩尤工. 思清格老, 命筆造微, 蓋亦以其畫爲之士固未有不汲古不攻文而可謂之善畫者. 漁山執古人之六要六長, 以研味於風雅, 其進而挾轍古人也, 孰得而禦之?’ 蓋宗伯之序其詩, 兼取其畫又如此.”

道光 2年(1823), 상숙 사람 孫原湘은 冒方華가 소장하고 있던 『桃溪集』과 『從遊集』을 어렵게 구입한 후, 합책하여 간행하고 「桃溪從遊集合冊跋」을 남겼다. 그가 발문 속에서 언급한 「八燈」, 「哭王煙客」, 「讀西臺慟哭記」, 「弔孫太初墓」 등에 관한 내용을 통해 두 시집에 수록된 작품들 중에는 『寫憂集』에 포함된 시들과 중복되는 것들이 일부 포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27)</sup> 하지만 손원상이 합책한 것도 전하지 않아 그 전체적인 면모를 살필 수가 없다.

명 왕조에 대한 절개를 지킨 유학자로서, 가난한 화가이자 시인으로서의 불우한 시대를 살았던 오어산의 고단한 삶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은 上海徐家匯藏書樓에 소장된 그의 抄本을 통해 그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寫憂集』에 남아있다. 이 책에는 오어산보다 연배가 높았지만 그와 詩文之交를 가졌던 余懷(1616-1696)의 『寫憂集序』가 포함되어 있다.

琴川の 오어산은 學道人이다. 산수화에 뛰어나 고인의 그림을 모의하여 神似的 경지에 이르렀고, 王子耕煙과 함께 일시를 풍미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단지 그가 그림에 뛰어남만 알고, 시에 뛰어남을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단지 그의 시가 그림에 가렸음만 알고, 그림으로서 시를 전한 바를 알지 못한다. 올해 5월 함께 雪溪를 여행하며 그의 『寫憂集』을 보니 가슴 속에 蘊蓄한 감정은 한가하고 자유로웠고, 氣調는 처량하였다. 손바닥을 치며 읊어보니, 옷을 벗고서 두발을 죽 뺀고 앉아 붓을 들어 당시의 일을 써 내려 간 것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詩經』에서는 “수레나 타고 나가 놀면서 내 시를 씻어 볼까”라고 하였다. 아! 근심은 가슴 속에서 나오는 것인데, 어찌하여 이를 적었을까!<sup>28)</sup>

진원선생은 여회가 말한 “올해 5월”이 대략 강희 4년(1665)년의 일이라고 추론하였다.<sup>29)</sup> 비바람을 무릅쓰고 오어산과 함께 배를 타고 松陵으로 가는 도중에 처음 『寫憂集』을 접하게 여회는 흔들리는 선상에서 바로 서를 적었다고 한다. 여회의 평가처럼 『寫憂集』 속의 작품은 오어산이 발을 딛고 있는 현실에서 느낀 근심과 울분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토해낸 시편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앞에서 살펴본 몇 편의 서를 통해 오어산은 古人의 風度を 지닌 인물이었지만 결코 눈앞의 현실을 회피하지 않는 비분강개한 인물이었고, 그의 시는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가슴 속에 커커이 쌓아두었다가 거침없이 진솔하게 토로한 ‘詩史’의 성격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오어산이 『寫憂集』에 수록된 시를 통해 그가 가슴 속에 품었던 근심들을 하나하나 드러내보고자 한다.

27) 孫原湘, 「桃溪從遊集合冊跋」: “此冊所錄大半陸刻所無, 如八燈詩僅有書燈一首, 且起結與此迥異. 而哭王煙客八章, 此僅有四. 讀西臺慟哭記三章, 此僅有一. 弔孫太初墓作七律, 而此作五古. 此冊乃漁山手書, 筆跡與題畫款識確然一手. 不知是爲當時定本, 抑或晚年別有增刪, ……”

28) 余懷, 『寫憂集序』: “琴川吳子漁山, 學道人也. 工寫山水, 摹擬古人, 得其神似, 與王子耕煙並美一時. 然人徒知其善畫, 而不知其工詩. 人徒知其詩以畫掩, 而不知其畫以詩傳也. 今年五月, 同遊雪溪, 觀其寫憂一集, 襟情閒放, 氣調蒼涼, 拊掌吟詠, 想見其磐礴解衣, 放筆直寫時也. 詩曰: “駕言出游, 以寫我憂.” 噫! 憂從中來, 其何以寫之哉! 是爲序.”

29) 章文欽은 『寫憂集』 속에는 강희 4년 이후의 시뿐만 아니라 오어산이 嘉定에서 담임신부로 사목활동을 하던 당시의 작품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余懷는 강희 35년(1696)에 별세했기 때문에 이 서는 그가 만년에 지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 3. 吳漁山の 근심<sup>30)</sup>

#### 1) 亡國之憂

오어산이 『寫憂集』을 통해 가장 먼저 드러낸 근심은 亡國이었다. 그가 13살이 되던 崇禎18年(1644) 명의 마지막 황제는 景山에서 나무에 목을 매 자살했고, 北京에 입성한 만주군과 吳三桂는 紫禁城에서 順治帝라는 소년 황제를 등극시키고 청의 건국을 공포하였다. 그러나 왕조의 교체는 황제의 죽음과 새로운 황제의 즉위로 끝이 나지 않았다. 북경을 떠난 명 왕실의 일족들은 華中和 華南 지역에 망명정권을 세우고 청조에 저항하며 명 왕실의 부흥운동을 이어 나갔다. 만주족은 명의 마지막 수호까지 물리치는데 17년의 세월이 걸렸고,<sup>31)</sup> 三藩의 난(1673~1681)과 臺灣의 鄭氏정권을 완전히 평정(1683)하는데 까지 40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사이 소년 오어산은 이미 중년이 되었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음으로 내몰렸으며, 크고 작은 전란이 끊이지 않았던 강남지역의 희생자는 더욱 늘어났다. 1682년 오어산이 마카오에서 예수회에 입회할 때까지 전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전점익은 오어산의 어머니 王씨가 “血雨가 대지를 붉게 물들이고, 벌건 대낮에도 짐승들의 털이 흩날리며, 바닷물이 산지사방으로 날리는”<sup>32)</sup> 동란의 시대에 氷玉같은 마음과 위엄이 있고 당당한 태도로서 그들 삼형제를 키워 내셨다고 칭찬하였다. 오어산의 젊은 날은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쏟는 전쟁 통에 흘러갔고, “反淸復明” 운동에 참가한 많은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마주하며 살았다. 상숙은 반청복명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된 지역이었고, 평생 명을 위한 절개를 지킨 義理之學의 스승 진호는 그 지역 유민들의 정신적 지주였다. 이에 반해, 詩學의 스승 전점익은 잠시 청나라를 섬김으로서 大節을 잃어 사람들의 비방을 면치 못했고, 스스로도 “빈사의 지경에 있으며 죽지도 못하고 삶을 훔쳐 겨우 살아왔다. 이 사람은 천지간의 상서롭지 못한 사람이다”<sup>33)</sup>라 하며 자신의 失節을 자책하고 회한을 토로했다.

그러나 전점익은 지난날 그가 직접 가르쳤던 瞿式耜와 鄭成功 등 남명 桂王 정부의 ‘抗淸勢力’과 비밀리에 연계하여 반청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직접 참여하고 있었다. 상숙의 紳士로 전점익의 제자였던 구식사는 廣東 肇慶에서 萬曆帝의 손자인 永曆帝를 桂王으로 추대하고, 청에 대한 항전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인물이다. 永曆元年(順治四年: 1647) 청나라 군사가 조경을 점령한 후에도 그는 桂林에 남아 항전을 이어나갔고, 영력제에게 누차 소를 올려 도주를 중단하고 계림으로 돌아올 것을 권하기도 했다. 1650년 계림이 청나라 군대에 함락되면서 구식사는 뜻을 이루지 못한 통한을 품고 피살되고 말았다. 영력 7년(1654) 구식사의

30) 본 장에서는 줄고 「吳漁山の 죽음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고찰 - 해항도시 마카오에서의 생활을 중심으로」(『해항도시문화교섭학』, 제14호, 2016.04)의 제Ⅱ장 “吳漁山の 생애와 기독교 귀의” 중의 일부(pp.37-39) 내용을 참고, 재해석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힌다.

31) 조너선 D. 스펜스, 김희교 역, 『현대 중국을 찾아서 1』, 이산, 2001, p.61.

32) 錢謙益, 『牧齋有學集』 卷43, 「吳節母孺人」: “雨血赭地, 風毛白天. 海水橫飛, 氷玉凜然.”

33) 錢謙益, 『有學集』 卷39, 「與族弟軍鴻論求免慶壽詩文書」: “瀕死不死, 偷生得生, 此天地間之不祥人.”



후손들이 그의 유골을 수습하여 고향 우산 기슭에 안장할 때, 오어산은 시로서 遺臣의 죽음을 기록하고 망국의 슬픔을 기록하였다.

桂林未遂知銜恨, 桂林에서 못한 바를 이루지 못했으니 원망을 품었음을 알겠고,  
蔓草空遺淚眼看. 덩굴 풀로 뒤덮인 빈집을 눈물 어린 눈으로 바라보네.  
庭蘚尚餘行跡在, 뜰의 이끼는 여전하고 행적 또한 남았지만,  
秋螢爭奈映書殘. 가을밤 반딧불이 다투어도 어찌 다 읽지 않은 책을 비출까.  
椿存破宅吟風冷, 무너진 집의 참죽나무는 찬바람에 신음하고,  
雁宿荒磯怯雨寒. 거친 물가에 깃든 기러기는 차가운 비를 겁내는 구나.  
回首自懸孤劍後, 스스로 孤劍을 매달고 고개를 돌려보니,  
白楊蕭瑟路漫漫. 白楊木만 소슬하고 길은 끝이 없네. 34)

명이 망하고 10년, 충신의 유골은 어렵게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살아있는 많은 유민들은 이민족 지배자의 조정에 투항하고 있었다. 누대로 상속의 명문가였던 瞿氏집안은 이민족 정권에 대항한 대가로 가솔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저택은 허물어져 잡초만 무성한 폐허와 다를 바가 없었다. 명의 유민으로 끝까지 절개를 지키려는 遺老와 유민들의 삶은 고단하기 그지없었지만 진호를 좇아 義理之學을 배운 오어산은 기꺼이 새로운 세대의 유민이 되었고, 마음속에 쌓인 이런저런 불만과 근심을 토로하여 「寫憂」를 적었다. 『寫憂集』이란 이름도 이 시에서 비롯된 것이다.

十年萍跡總無端, 십년의 부평초 같은 행적은 내내 아무 이유도 없고,  
慟哭西臺淚未乾. 西臺를 찾아 통곡하니 눈물이 마르지 않네.  
到處荒涼新第宅, 이르는 곳마다 황량한데 새로 생겨나는 저택들,  
幾人惆悵舊衣冠. 몇 사람이나 옛 사대부들을 가슴아파할까.  
江邊春去詩情在, 강변의 봄은 지나가나 詩情은 남았고,  
塞外鴻飛雪意寒. 새외로 큰 기러기 날아가니 흐린 하늘은 차네.  
今日戰塵猶不息, 오늘도 전쟁터의 소란함이 그치지 않으니,  
共誰沈醉老漁竿. 누구와 만취하여 오래토록 낚싯대를 드리울까? 35)

만주족이 入關하고 10년, ‘반청복명’을 위한 유민과 유로들의 항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새로운 왕조에 투항한 일부 신사들은 폐허 위에 새로운 저택을 짓고 영화를 누리기 시작했다. 청의 황제는 서원의 설립과 문인들의 결사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려 새로운 왕조에 대한 도전을 막고자 했고, 강남의 유로들은 이에 강력하게 대항하였다. 그 결과 哭廟案, 奏銷案과 같은 獄事와 文字獄이 발생했고 정복왕조에 대항하던 유로들은 북쪽으로 돌아가는 기러기들 마냥 遼陽과 寧古塔 등 새외의 만주 땅으로 보내졌다. 36) 명 왕조가 무너진 후, 부평초처럼 떠돌던 오

34) 『寫憂集』, 「哭臨桂伯瞿相國」.

35) 『寫憂集』, 「寫憂」.

36) 章文欽, 『吳漁山集箋注』, 中華書局, 2007, p.140. 임계순, 『淸史 만주족이 통치한 중국』, 신서원, 2007, p.109.

어산이 원 왕조에 대항하다 순국한 文天祥과 비분강개한 삶을 살다 간 謝翱의 일을 떠올리고, 富春江변의 西臺<sup>37)</sup>를 찾아 망국의 근심을 적어낸 시가 바로 이 「寫憂」인 것이다.<sup>38)</sup>

구식사의 죽음 이후 남명정부의 반청운동은 종말을 고하였지만, 명의 유민들의 항전 의지는 결코 사아들지 않았다. 일찍이 계왕으로부터 延平郡王과 潮王에 봉해졌던 鄭成功은 1658년 張煌言과 함께 동중국해, 남중국해 교역에서 얻은 풍부한 자금을 기반으로 해서 17만의 병사와 수백 척의 전함을 이끌고 장강을 거슬러 올라와 南京을 포위하고 청나라 군대와 일대 격전을 벌였다. 일찍이 정성공을 가르쳤던 전겸익은 제자가 이끄는 군대가 남경을 포위하고 공략하던 당시의 상황을 시로 형용하였다.

龍虎新軍舊羽林, 용과 호랑이 같은 신군은 옛날의 羽林衛라,  
八公草木氣森森. 뻑뻑했던 八公山의 초목처럼 기세가 삼엄하네.  
樓船蕩日三江湧, 樓船이 태양을 진동시키며 장강에 나타나니,  
石馬嘶風九域陰. 왕릉의 석마가 우렁차게 울며 중원 땅을 비호하네.  
掃穴金陵還地肺, 金陵의 적을 소탕하여 중원의 肺部를 회복하고,  
埋胡紫塞慰天心. 鴈門의 오랑캐를 파묻어 天心을 위로하네.  
長干女唱平遼曲, 南京 長千里 여인네들은 平遼曲을 노래하고,  
萬戶秋聲息搗砧. 만호에 들리는 가을소리에 다듬이 노래 그쳤네.<sup>39)</sup>

전겸익은 시를 통해 정성공의 起義軍이 하루빨리 남경을 수복하고, 오랑캐들을 만리장성 밖으로 내몰아 명 왕조를 부흥시키기를 바라는 마음을 걱정적으로 토로하였다. 또한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金華와 宋江 등지를 오가며 반청운동을 이끌고, 정성공의 군영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전겸익은 이러한 항청 운동을 통해 스스로를 참회하고 자숙하여 당시 세상 사람들의 양해를 얻을 수 있었다.<sup>40)</sup> 전겸익을 스승으로 모신 정성공과는 師門이라 할 수 있는 오어산도 이때의 일을 시로 기록하였다. 하지만 시의 분위기는 스승의 것과 사뭇 달랐다.

二年身世歎如萍, 이 년간의 처지가 부평초 같음을 탄식하고,  
兩鬢相看白漸生. 두 귀밑머리 살펴보니 흰머리가 생겨났네.  
舊里悲秋惟蟋蟀, 구슬픈 가을 옛 동리엔 귀뚜라미소리뿐이고,  
異鄉愁雨共鷓鴣. 구슬픈 비 내리는 타향에서 해오라기와 함께하네.  
南中見說收番馬, 南京에서 오랑캐의 말을 빼앗았다는 소리 들리더니,  
京口猶聞拔漢旌. 鎮江 京口에서 漢人의 깃발이 뽑혔다는 소리 들리네.  
安得此時爭戰息, 어느 때나 이 전쟁이 끝이 날까,  
還家黃葉滿溪迎. 집으로 돌아가면 노란 나뭇잎으로 덮인 개울이 반기겠지.<sup>41)</sup>

37) 南宋이 망하고 충신 文天祥이 元軍에 체포되어 순국하자 嚴陵을 지나던 謝翱는 釣臺에 올라 그를 제사지내고 「西臺慟哭記」를 지었다.

38) 吳漁山은 「讀西臺慟哭記」를 짓고 “宋의 유민 謝翱가 지은 「西臺慟哭記」가 있는데, 西臺는 富春江가에 있다”

39) 錢謙益, 「金陵秋興八首次草堂韻二首」 其一 .

40) 袁行霈主編, 『中國文學史』, 高等教育出版社, 1998, p.256.

제5-6구의 내용처럼 順治16년(1659) 5월, 청나라 군대가 雲南을 공격하느라 강남지역에 대한 방어가 허술해진 틈을 타 병사를 일으킨 정성공은 6월에는 瓜州와 鎮江 등지를 점령하고, 7월에는 장강 하류의 남북 3州와 22현을 점령하고 남경을 포위하였다.<sup>42)</sup> 하지만 일시적인 승리에 취해 공격을 늦추는 동안 청군은 전열을 정비하였고, 7월 남경 공략에서 대패한 起義軍은 진강과 과주 등지의 모든 땅을 잃고 厦門으로 물러났다. 정성공의 군대가 남경을 공략하는 동안 장강 하구에서 가까운 상숙의 白岬港은 한동안 기의군 水師의 근거지가 되었다.<sup>43)</sup> 오어산의 가족을 포함한 상숙의 백성들은 전란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피난을 했지만 물가에서 해오라기와 함께 거주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해야만 했다. 오어산은 이 전쟁을 만주족과 한족간의 민족대립으로 인식하였지만 하루라도 빨리 전란이 끝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백성들과 같은 바람을 가지게 되었다.

毛骨尚殊衆, 秋深奈病何. 털과 골상 모두 무리 중에 뛰어난데, 깊은 가을 어찌하여 병이 들었나?  
戰場空草綠, 壯士且悲歌. 전장은 텅 비었고 풀은 푸르는데, 壯士는 슬픈 노래를 부르네.  
力盡塵無限, 嘶殘歲幾多. 힘은 다했지만 풍진은 끝이 없고, 울부짖지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主恩知不淺, 淚血灑晴沙. 주인의 은혜 알지 않음을 알기에, 풀밭에 피눈물을 뿌리네.<sup>44)</sup>

南明정부가 패망하고, 정성공의 군대가 남경 수복에 실패하자 오어산 뿐만 아니라 강남의 유민들은 더 이상 무력으로 청 왕조를 전복시키는 일이 불가능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오어산은 두보의 「兵馬」의 시법을 본받아 깊은 가을, 큰 병에 걸린 兵馬가 모래바람이 훑날리는 전쟁터 풀밭에 누워 피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그려내었다. 텅 빈 전쟁터에 쓰러져 있는 병마를 바라보며 슬픈 노래를 부르는 壯士의 모습에 반청복명에 대한 의지는 꺾이지 않았지만 더 이상 어찌할 방도가 없는 자신의 처지를 기탁하였다.

청나라 군대에 대패한 정성공은 1661년 네덜란드인들을 몰아내고 대만에 새로운 거점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정성공은 병사했고, 1683년 대만을 거점으로 청 왕조에 대항한 정씨 왕권은 멸망하고 말았다. 오어산의 지인들 중에는 청 왕조를 피해 대만으로 옮겨간 이도 있었고,<sup>45)</sup> 나가사키와 동남아 등지로 이주한 사람들도 있었다.<sup>46)</sup> 일찍이 반청운동을 위해 도쿠가와 막부에 원병을 청하러 갔던 주순수도 결국 일본으로의 망명을 결심하였다. 스승 전겸임의 학생이었던 주순수가 나가사키로 출발할 즈음, 오어산은 사형을 위해 증별시를 지었다.

征帆出海渺無津, 돛을 펼쳐 대해로 나아가면 물이 끝없이 넓어 항구도 없고,

41) 『寫憂集』, 「避地水鄉」.

42) 章文欽箋注, 『吳漁山集箋注』, 中華書局, 2007, p.57.

43) 章文欽, 『吳漁山及其華化天學』, 中華書局, 2007, p.43.

44) 『寫憂集』, 「病馬」. 이 시는 杜甫의 「病馬」의 시법을 차용하였다. “乘爾亦已久, 天寒關塞深. 塵中老盡力, 歲晚病傷心. 毛骨豈殊衆, 馴良猶至今. 物微意不淺, 感動一沈吟.”

45) 『寫憂集』, 「贈唐茂弘孝廉之澎湖」.

46) 『寫憂集』, 「懷陸上游在日本」.

但見長天不見塵. 그저 높고 멀고 넓은 하늘만 보일뿐 세상은 보이지 않겠조.  
 一日風波十二險, 하루에도 세찬 바람과 험한 물결이 열두 번도 더 일어 날 테니,  
 要須珍重遠遊身. 먼 길 가시는 옥체를 반드시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sup>47)</sup>

## 2) 哀民之憂

왕조의 교체는 무고한 수많은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1645년 장강을 넘어 남경을 공격하던 청나라 군대는 강남지역에서 저항하는 백성들에 대해 무차별적인 살육을 자행하여 揚州에서 100만 명을, 江陰에서 17만 2천여 명을, 嘉定에서 2만 여명을 학살했다.<sup>48)</sup> 정복왕조의 폭력성과 잔인함을 경험한 오어산은 명 왕조에 대한 절개를 지킬 것을 결심하고, 계속되는 전란에 고통 받는 사람들의 고단한 삶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거두지 않았다.

秋夜眠無著, 秋聲兩耳盈. 가을 밤 잠 못 드니, 가을 소리 두 귀에 가득하네.  
 風多沉鼓角, 月小暗山城. 바람이 많아 鼓角소리를 삼키고, 달이 작아 산성은 깜깜하네.  
 野哭那能絕, 戰爭殊未平. 들판의 곡소리는 언제나 그칠까, 전쟁은 아직도 그치지 않았네.  
 故人何處宿, 惆悵淚縱橫. 고인들은 어디에 계시는지, 슬픈 마음에 눈물이 마구 흐르네.<sup>49)</sup>

정성공의 기의군이 남경을 공략하면서 강남지역은 또다시 전쟁터가 되었고, 살던 집을 버려두고 피난길에 오른 많은 백성들은 갇혀가는 가을밤 산성에 몸을 숨겼지만 쉽게 잠들지 못하였다. 바람 속에 전해오는 전쟁터의 북소리와 나팔소리, 들판에서 들려오는 피난민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던 사람들은 ‘반청복명’이라는 명분보다 지긋지긋한 전쟁이 끝나서 하루라도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과 다시 모여 평화롭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몰락한 명문가에서 태어나 특별한 가산도 생업도 갖지 못한 오어산은 이미 출사의 뜻을 접었기 때문에 그림을 팔아 생계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다. 전란이 끝난 후, 그림을 팔기 위해 집을 떠나 자주 먼 길을 나서야 했던 그는 일찍부터 남북교통의 요충지로서 물산이 풍부했던 대운하변의 高郵를 지나게 되었다. 그러나 전란과 수재로 황폐해진 고우에서는 더 이상 지난날의 풍요로움을 찾아볼 수 없었다.

只道頻年浸, 那知半淚痕. 매년 물에 잠긴다고만 생각했지, 그 반이 눈물의 흔적일줄 어찌 알았으랴.  
 魚蝦空晚市, 蓮藕失香村. 저녁 시장에는 고기와 세우가 없고, 향촌에서는 연근의 향기가 사라졌네.  
 湖鳥閑巢屋, 江雲亂掩門. 물새는 한가로이 나무 위 등지에 깃들고, 江雪은 어지러이 닫힌 문 흔드네.  
 迷津南北棹, 來繫柳殘根. 길을 잘못 들어 남북으로 노를 젓다, 버드나무 잔가지에 배를 맨다네.<sup>50)</sup>

오어산은 고우가 매년 수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원인이 홍

47) 『寫憂集』, 「送朱舜水之日本」.

48) 임계순, 『淸史 만주족이 통치한 중국』, 신서원, 2007, p.104.

49) 『寫憂集』, 「秋夜」.

50) 『寫憂集』, 「高郵道中用梅村太史韻」(三首). (1) 85.

수 때문만이 아니라, 그 반은 전란과 가혹한 세금으로 고통을 겪는 백성들이 흘린 슬픔의 눈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전란이 있기 전, 산과 바다에서 모여든 여러 가지 물산으로 넘쳐나던 저녁 시장에서 물고기와 세우조차 찾아 볼 수 없고, 연근 산지로 유명한 고우에서 연근의 향기마저 맡을 수 없는 현실을 시로서 담담하게 기록하였다.

전란과 함께 강남지역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은 가뭄과 뒤이어지는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였다. 장강과 대운하에 인접한 상숙은 봄이면 많은 비가 내렸고, 불어난 계곡물이 집과 전답을 집어 삼키는 수재가 매년 이어졌다. 산골짜기의 어귀로 이주한 오어산의 가족은 그나마 피해가 적었지만 온 마을이 또 다시 물에 잠겼다.

我移住溪口, 未老頭先白. 산골짜기 어귀로 옮겨 살게 되니, 아직 늙지도 않았는데 머리는 희끗희끗.  
年年苦春雨, 今歲更淫溢. 해마다 괴로운 봄비가 내리지만, 올해는 더욱 심하게 넘쳐나네.  
老屋盡傾頽, 人聲水氣塞. 오래 된 집은 기울어져 무너지기 직전이고, 사람들 소리 물 기운에 막혔네.  
四顧無火光, 濕雲昏樹色. 사방을 둘러봐도 불빛은 보이지 않고, 습기 품은 구름이 나무색을 흐리게.  
短牀蛙坐鳴, 破巢龜所匿. 짧은 침상에는 개구리가 앉아 울고, 깨진 등지에는 거북이가 숨었네.  
閭閻更幾存, 我豈庇眠食. 여염집은 몇 채나 남았을까, 내 어찌 편히 자고 밥 먹을 수 있을까?  
憑誰報天閼, 君門九重闕. 누구에게 부탁하여 하느님께 고할까, 上帝의 대문은 구중궁궐이라네.<sup>51)</sup>

끊이지 않는 전란과 자연재해로 인한 곤궁한 삶은 젊은 시인의 머리를 희끗희끗하게 바꾸어 놓았다. 오어산이 새로 이사한 낡은 집도 비가 새어 생활에 불편함이 적지 않았지만 그나마 산골짜기 어귀 높은 곳에 있어 물에 잠기지는 않았다. 간밤의 비로 대부분의 이웃집들이 침수되었고, 쏟아져 내리는 물소리에 주민들의 말소리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는데 또다시 하늘을 가린 먹장구름은 시인을 불안하게 하였다. 오어산은 하늘에라도 이 물난리를 호소하고 싶었지만 마땅히 호소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村叟相逢話雨天, 시골 영감들 서로 만나 비가 내리는 하늘을 이야기하는데,  
昨宵新漲沒南田. 어젯밤 새로 불어난 물에 남쪽 전답이 잠겼다네.  
不如賣犢買舟去, 송아지를 팔아 배를 사고,  
結網來張縮項鰖. 그물을 짜고 던져서 방어를 잡는 이만 못하다네.<sup>52)</sup>

상숙의 향리에서 일반민들과 이웃하며 살던 오어산은 매번 홍수가 지고 집과 전답이 물에 잠기면 野老, 漁翁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하였다. 그는 매년 이렇게 물난리를 겪느니 차라리 농사를 접고 송아지를 팔아 배를 마련하고, 강이나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는 것이 낫겠다는 시골 영감들의 불만을 듣고서도 아무런 해결책을 내지 못하고, 다만 시로서 기록하여 후대에 남겼다.

백성들의 또 다른 근심은 과중한 세금이었다. 명과 청의 기록에 따르면 오어산이 살았던 常熟과 上海, 嘉定이 속해 있던 蘇州府와 松江府의 과중한 세금은 전국적으로도 유명했다. 무

51) 『寫憂集』, 「溪口」.

52) 『寫憂集』, 「題畫詩」 三十八.

거운 부세를 견디지 못한 백성들은 전답을 버리고 유민이 되어 객지를 떠돌아다녔고, 마을마다 도망한 자가 절반에 이르렀다고 한다.<sup>53)</sup> 강남을 비롯한 연해지역 어민들의 상황도 결코 다르지 않았다. 정성공이 대만을 점령한 이후, 청 조정은 1661년 遷界令을 발해 福建·廣東을 중심으로 하는 연해 주민을 20킬로미터 이상의 내지로 강제 이주시키고 연안을 무인지대로 해서 정씨 세력과 주민과의 접촉을 끊으려 했다.<sup>54)</sup> 연해 주민들은 강화된 해금령과 천계령으로 인해 해안지역의 대규모 옥토를 묵혀야 했고, 바다에도 나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생업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 대한 세금은 줄어들지 않았고, 연해지역 주민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里巷茅茨八九虛, 골목안의 집들은 열에 여덟아홉이 비었으니,  
那堪征稅問隣漁. 어떻게 征稅를 견디는지 이웃 어민에게 물었네.  
只今縱有張吳郡, 지금 張吳郡 같은 어진 관리가 있다 해도,  
未必牽舟岸上居. 배를 끌어 물에 거주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네.<sup>55)</sup>

강희연간 전반까지 전쟁 수행을 위한 重稅와 해금에 동반한 불황으로, 관청은 민중들에게 잔혹한 징세에 나섰다. 오어산은 과중한 부세를 피해 어민들 중 열에 여덟아홉 집이 도망하여 선상에서 생활하는 단민이 되거나 유민이 되었고, 남은 사람들이 모든 세금을 떠맡아야 하는 가혹한 현실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사실을 시로서 고발하였다. 두보가 ‘三吏三別’을 통해 내륙의 농민들을 괴롭히는 酷政을 비판하였다면 오어산은 시를 통해 강남 연해지역 어민들이 겪는 고통을 사실적으로 기록하였다.

我本生吳儂, 出門四方早. 나는 본래 吳 땅의 사람으로, 일찍부터 집을 떠나 사방을 전전했네.  
年年苦行役, 何以舒懷抱. 해마다 여행의 괴로움을 겪으니, 어떻게 마음속에 품은 뜻을 펼치겠는가.  
今年始歸來, 學稼白雲島. 올해는 처음으로 돌아와, 황량한 땅을 얻어 농사일을 배우고자 하였네.  
一春怒雨翻, 三吳盡浩渺. 봄이 되자 세찬 비 쏟아지고, 三吳가 모두 물에 잠겨 넓고 아득하네.  
人家依萍浮, 桴白鳴空杳. 사람들 부평초에 의지해 떠다니고, 공기와 절구 소리 듣기 어렵네.  
漁火欲入戶, 行舟振木杪. 漁火는 집으로 들어올 듯하고, 지나가는 배가 나뭇가지 끝을 흔드네.  
仰睇浮天空, 移足忽地小. 하늘과 물이 상접한 곳을 仰望하니, 발을 옮겨 놓을 땅이 작구나.  
春花若病厭, 春聲獨鳩鳥. 봄꽃은 병든 듯하고, 봄 소리는 오직 비둘기 울음뿐이네.  
旦晝俱昏昏, 山城復悄悄. 아침부터 낮까지도 어둑어둑하고, 山城은 다시 조용하네.  
天豈厭農桑, 四月忘晴曉. 하늘은 어찌 농사일을 싫어하고, 四月은 맑게 갠 새벽을 잊었네.  
地恐責歲徵, 夜半濬江潦. 땅은 세금의 책임을 두려워하고, 한밤중에 강물이 넘쳐흐르네.  
憶從遠鄉去, 風吹日杲杲. 먼 異鄉으로 떠난 이를 생각하니, 바람은 불고 해는 높구나.  
睠此菰蒲天, 誰料魚龍擾. 집이 그리워 물가에 전답을 마련했으나, 꺾은비가 내려 재앙이 되네.  
蛙怒據高原, 蟻憐尋穴少. 개구리가 노하여 고원에 의지하고, 개미는 불쌍하게 적은 구멍을 찾네.  
風黑卷黃茅, 中心怒如擣. 광풍이 누런 띠 지붕을 말아 올리니, 내심 걱정으로 속을 태우네.

53) 嘉慶, 『松江府志』卷20『田賦志』: “因賦重而流移失所者多矣. 今之糧重去處, 每里有逃去一半上下者.”

54) 미시모토 미오·미야지마 히로시, 김현연·문순실 역, 『조선과 중국 근세 오백년을 가다』, 역사비평사, 2004, pp.218-219.

55) 『寫憂集』, 「問隣漁」.

부計買漁舟, 漁舟豈終老. 너무 이른 계획으로 고깃배를 사니, 고깃배로 어찌 여생을 보낼까.<sup>56)</sup>

노모를 봉양하고 자식들을 양육하기 위해 일찍부터 그림을 등에 지고 객지를 전전해야 했던 오어산은 강희 13년(1674) 우산의 물가 근처에 다소간의 황무지를 마련하고, 농사일을 배워 여로의 피로와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그러나 봄철 산 중에 때아닌 때 내린 곳은 비로 모든 것을 잃게 된 그는 도연명의 「歸園田居」와 두보의 「茅屋爲秋風所破歌」의 시법을 차용하여 홍수로 물에 잠긴 상숙의 모습과 가중한 세금 등 그와 마을사람들이 함께 겪는 모든 근심을 시 한편에 쏟아 내었다. 또한 벼들과 함께 이때의 일을 그림으로 그려 「苦雨詩圖」라 제명한 두루마리를 완성하였다. 팔순이 넘은 畫師 왕시민은 제자가 지은 시와 그림을 보고 가난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을 “몹시 딱하고 가엽게 여기는 마음이 깊게 얹히고 감겨, 각각 그 모든 것을 밝혀내었고, 시 가운데 그림이 있고, 그림 가운데 시가 있다”<sup>57)</sup>고 극찬하였다. 오어산은 동리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의 근심과 고통을 나누면서 진정한 예술의 완성을 이룩한 것이다.

### 3) 生活之憂

崇禎帝의 자살 소식이 전해졌던 초기에는 사대부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까지 반청복명에 대한 의지가 강하였다. 하지만 中原에 대한 지배가 점차 안정되어가자 청 왕조는 “滿漢一致, 不岐視”를 기치로 내세우고, 博學鴻儒의 발걸을 명하여 학자들을 회유하고 지원을 얻고자 하였다.<sup>58)</sup> 과거가 재개되자 명 왕조에 대한 충성을 부르짖으며 은거했던 지식인들이 자발적으로 변발을 하고, 만주족의 옷으로 갈아입고서 滿人의 식량을 얻기 위해 무리지어 科場으로 모여들었다. 그러나 오어산은 세태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민족의 과장에 나서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을 굳게 지켰다. 백성들의 아픔을 보듬아주는 부모관이 될 기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儒道의 도를 닦는 선비로서 書燈을 밝히고 밤늦게까지 학문에 전념하였다.

書館宜遙夜, 熒熒徹五更. 書館은 마땅히 긴 밤을 밝혀야 하니, 희미한 불빛이 五更을 철하네.  
自知新舊火, 不盡短長檠. 새 불을 일으켜 묵은 불과 바꾸고, 짧은 등을 긴 등으로 끝없이 바꾸네.  
雪掩終無倦, 螢乾仗爾明. 눈이 덮어도 끝내 고단해 앓고, 반딧불이 말라도 그 밝음에 기대네.  
餘光流漸遠, 猶起四鄰聲. 남은 불빛이 차츰 멀리 퍼져가니, 사방 이웃에서 닭 울음소리 들리네. <sup>59)</sup>

오어산은 망국의 한을 시에 담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시로 기록하였다. 또한 병약한 몸에 남루한 옷을 걸치고 자리를 보존한 채 누워 배가 고파 우는 어린 자식들의 울음소리를 들어야 하고, 자식과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 갖은 고생을 감내하는 아내의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했던 자신의 곤궁한 생활에 대한 근심도 시로 표현했다.<sup>60)</sup>

56) 『詩鈔補遺』, 「嘆雨十六韻」.

57) 王時敏, 「題吳漁山苦雨詩圖後」: “而懇惻纏綿, 各窮其致. 詩中畫, 畫中詩, 此卷已備之矣.”

58) 임계순, 『淸史 만주족이 통치한 중국』, 신서원, 2007, p.101 참고.

59) 『寫憂集』, 「書燈」.

생업의 방편을 갖지 못한 대부분의 유생들은 학문을 하고 벼슬길에 나아가 녹을 얻을 수 있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끝내 과장에 나서길 거부한 오어산은 노모를 봉양하고, 어린 자식들을 양육하기 위해 그림을 그리는데 전념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그의 작업은 종종 늦은 밤에서 아침으로 이어지는 고된 작업이 되었다.

幽禽投林暮色空, 고요한 곳에 사는 새들이 숲으로 숨어드니 저녁 빛은 쓸쓸하고,  
捲箔秋影暗窗中. 주렴을 걷어 올리니 가을 그림자가 창 가운데 숨어드네.  
呼童吹燈絨未了, 아이 불러 등을 밝혀도 주름을 그리고 점을 찍을 수 없으니,  
候曉點綴東山東. 새벽을 기다려 東山の 동쪽을 다시 이르려 하네.<sup>61)</sup>

당시 오어산은 화가로서 상당한 명성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의 그림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았다. 그러나 그는 부모님을 봉양할 수 있을 정도의 그림만을 팔고, 쉽게 그림을 내어 놓지 않았다.<sup>62)</sup> 또한 깨끗함과 맑음을 좋아했던 그는 이미 詩文으로 높은 위상을 가졌지만 사람들의 천거를 구하지도 않았고, 남들이 자기의 그림을 알아주기를 굳이 원하지도 않았다.

“문장으로 나의 마음을 전하고, 그림으로 나의 뜻을 편하게 하는 것이다”라 하셨다. 초의를 입고 콩잎을 먹을지라도 사람들에게 영합하지 않을 것이다. 신분이 고귀한 사람들이라도 사람을 보내 부를 수 없으니, 영예와 치욕을 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필묵의 도는 도 있는 자가 아니면 능히 할 수 있는 바가 아닌 것이다.<sup>63)</sup>

오어산은 王公貴戚이라도 道 있는 자가 아니면 쉽게 그림을 내놓으려 하지 않았고, 진정 자기의 그림을 원하는 사람을 찾아 揚州, 蘇州, 杭州 등 상업과 문화가 발달한 대도시들을 찾는 경우가 많았다. 그림을 팔기 위해 길을 나선 가난한 화가는 “客舍에서 보내는 삼년의 시간 중에 그 반은 절에서 기숙하며”<sup>64)</sup> 선승들과 함께 생활하며 교류를 가졌다. 특히 자신의 벗이자 詩畫를 배우는 제자인 默容和尚이 주석하고 있던 소주 興福庵은 가난한 나그네의 소중한 쉼터였다. 하지만 객지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허름한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어린 자식과 남편의 안위를 걱정하는 아내에 대한 그리움은 깊어갔다.

風高破屋薜蘿深, 허름한 집에 바람이 높으니 담쟁이덩굴만 무성하고,  
乳燕空梁月滿扇. 빈 들보엔 제비 새끼 달빛은 문빛장에 가득하네.  
竹外湖光連野白, 대숲 넘어 호수 빛은 들판으로 이어져 하얗고,  
牆頭山色向門青, 담장 위의 산색은 문까지 이어져 푸르네.  
遙憐稚子癡難療, 아득한 곳의 어린 자식을 생각하는 어리석음은 고치기 어렵고,  
未解征夫髣髴零, 먼 길 나선 지아비를 헤아리기 어려운 아내의 살쩍은 쉬 빠지겠네.

60) 『三巴集』, 「澳中有感」其三: “牛衣臥聽小兒啼, 未得無情亦自迷. 天地由來終寂寞, 霑巾何事爲亡妻.”

61) 『吳漁山集箋注』卷五, 「墨井書跋」其 三十八則.

62) 張雲章, 「墨井道人傳」: “念無以給母氏之養, 尤專意於畫. 人爭購之, 漁山度可以奉高堂, 卽不輕出也.”

63) 『吳漁山集箋注』卷五, 「墨井書跋」其 三十九則: 曰 “文以達吾心, 畫以適吾意.” 草衣藿食, 不肯向人.

蓋王公貴戚, 無能招使, 知其不可榮辱也. 筆墨之道, 非有道者不能.

64) 『寫憂集』, 「著書樓次韻話隱」: “客使三年半在僧.”



花落烏程殘醉後, 꽃 지는 烏程에서 남은 술에 취한 뒤라면,  
何人不念故園亭. 그 누구라 고향집을 그리워 않으리오.<sup>65)</sup>

전란은 끝이 났지만 연이은 재해들로 오어산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다. 그림을 등에 지고 길을 나선 가난한 화가는 달 밝은 밤, 지친 몸을 이끌고 거지반 무너져가는 객사에 몸을 뉘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들보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고 제비 새끼가 눈에 든다. 생각은 저 멀리 대숲을 넘어 고향집까지 이어져 어린자식과 아내에게 미친다. 그림을 팔아 그 돈으로 생계를 영위해야 했기에 가족들은 그가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식구들의 기다림을 알기에 오어산은 쏟아지는 비를 무릎서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天寒滿湖雨, 하늘은 찬데 온 호수에 비가 내리니,  
獨棹東歸急. 홀로 노를 저어 급히 동쪽으로 돌아가네.  
遙望水邊村, 멀리 물가 마을을 바라보니,  
蕭條暮煙濕. 쓸쓸히 저녁연기가 내려앉네.  
家人應候我, 집안사람들 나를 기다리느라,  
深映柴扃立. 어두운 사립문에 나섰겠지.<sup>66)</sup>

그림을 팔아 약간의 돈을 마련해 집으로 돌아와도 살림은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 비가 오면 낡고 오래된 지붕에서 빗물이 새어 침상머리가 다 젖을 지경이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그렇게 건강하지 못했던 오어산은 여로에 지친 몸으로 새 지붕을 엮어 엮을 여력이 없었다.

牀頭漏處已成坳, 침상머리 비가 세는 곳은 이미 움푹 패었지만,  
無力添新補舊茅. 새 풀을 더해 낡은 모옥을 수리할 기운도 없다네.  
自笑不如雙燕子, 한 쌍의 제비보다 못한 나 자신을 비웃노라,  
年年春至便修巢. 해마다 봄이 오면 둥지를 수선하는구나.<sup>67)</sup>

가을날 세찬 바람에 지붕위의 띠가 날아가고, 南村의 아이놈들이 이를 주워 도망가자, 입술이 타고 입이 말라 소리도 못 지르고는 돌아와 지팡이에 기대어 혼자 한숨을 짓는 두보처럼 오어산은 매년 봄이면 둥지를 수선하는 제비를 부러워하였다. 비록 토해내지는 않았으나 오어산은 넓고 튼튼한 집을 얻어, 세상의 가난한 선비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어느 때 눈앞에 우뚝한 이런 집을 본다면 자신의 집은 부서져서 얼어 죽어도 좋겠다는 마음이었을 것이다.<sup>68)</sup>

세상의 가난한 선비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넓고 큰 집을 짓지 못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65) 『寫憂集』, 「吳興月夜思家」.

66) 『寫憂集』, 「冒雨暮過白沙湖」.

67) 『寫憂集』, 「燕至」.

68) 杜甫, 「茅屋爲秋風所破歌」: “八月秋高風怒號, 卷我屋上三重茅. 茅飛渡江洒江郊, 高者挂罥長林梢, 下者飄轉沉塘坳. 南村群童欺我老無力, 忍能對面爲盜賊, 公然抱茅入竹去. 唇焦口燥呼不得, 歸來倚杖自歎息. ……安得廣廈千萬間, 大庇天下寒士俱歡顏, 風雨不動安如山. 嗚呼! 何時眼前突兀見此屋, 吾廬獨破受凍死亦足.”

위무할 수 있는 길을 포기한 채 이미 불혹을 넘겨버린 오어산. 그는 잘못 올라가에 빠져 삼십년을 보내고 남쪽 들의 황무지를 개간하자 고집을 세우고 전원으로 돌아간 도연명처럼<sup>69)</sup> 마당을 마련하고 작은 집을 지어 버드나무 느릅나무로 그늘을 만들고, 오얏나무 복사나무를 심고자 했다.

墨雲起崇朝, 好雨遍南畝. 이른 아침 동안 먹구름이 일어나더니, 고마운 비가 남쪽 밭에 두루 내리네.  
新禾鬱將興, 慰此亢旱久. 어린 벼가 무성하게 피어나, 이 오랜 가뭄을 위로하네.  
隔隴聞農歌, 沮溺歡攜手. 언덕 넘어 농부들 노랫소리 들리니,沮溺이 기뻐하며 손을 마주 잡네.  
今彼逃亡人, 冒雨歸八九. 지금 저 도망을 갔던 사람들이, 비를 무릅쓰고 열에 아홉이 돌아오네.  
彷彿涸轍魚, 乍得西江澍. 수레바퀴 지난 곳에 낀 물의 물고기마냥, 갑자기 西江의 물을 얻었네.  
吾欲賦歸來, 去伴綠簑友. 나는 歸去來辭를 부르며 돌아와, 푸른 도롱이 입은 벗들과 짝하려네.  
理荒不憚勞, 濕雲帶鋤走. 황무지 개간하는 노고를 성가서 앓고, 濕雲 속에도 호미 메고 나가려네.  
暮色岡壟分, 牛羊認門柳. 저녁 빛이 언덕과 밭두렁을 나누면, 소와 양은 버들 심긴 집을 알아 오네.  
地無虞芮爭, 欣占歲其有. 땅에는 虞芮之訴가 없고, 올 가을엔 수확이 많으리라 점쳐보네.<sup>70)</sup>

전란이 끝난 후, 세상은 황폐해 졌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봄장마와 여름의 가뭄, 감당할 수 없이 무거운 세금 많은 백성들의 삶을 고단하게 하였다. 그러나 오어산은 ‘歸去來辭’를 부르며 전원으로 돌아간 陶淵明이 “새벽에 일어나 기음을 매고 달빛 속에 호미 메고 돌아오는”<sup>71)</sup> 삶을 살았던 것처럼 마을사람들과 함께 매년 반복되는 수해를 극복하고, 오랜 가뭄도 이겨내며, 고마운 비가 내리면 호미 메고 들에 나가 김을 매면서 아무런 분쟁도 일어나지 않는 이상적인 향촌을 건설하고자 하는 염원을 가슴속에 품고 있었다.<sup>72)</sup>

## VI. 나오는 말

江蘇 常熟 출신의 오어산은 ‘虞山書派’의 한 사람으로 ‘清代六家’라 불린 저명한 화가였고, ‘虞山詩派’의 일원으로 시인으로서는 상당한 문명을 가졌다. 錢謙益의 가르침을 좇아 ‘博學’과 ‘詩史’의 정신을 계승한 오어산은 만주에서 일어난 이민족이 한족의 왕조를 뒤엎는 전란의 시기를 만나 常熟과 江南의 강과 바다를 떠돌며 자신이 보고들은 일들을 시로서 기록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오어산의 전기 詩作 활동은 화가로서의 유명세에 가렸고, 그의 스승이나 지인 등 동시대인들뿐만 아니라 후학들도 그의 시가 그림에 가려진 것을 안타까워했고, 그의 그림이 그의 시를 표현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실을 아쉬워했다.

필자는 오어산의 전기 시를 전하고 있는 『寫憂集』 중에서 위급한 시대를 만나 ‘근심을 적

69) 陶淵明, 「歸園田居」其一: “少無適俗韻, 性本愛丘山. 誤落塵網中開, 一去三十年. 羈鳥戀舊林, 池漁思故淵. 荒南野際, 守拙歸園田. ……”

70) 『寫憂集』, 「好雨」.

71) 陶淵明, 「歸園田居」其三: “種豆南山下, 草盛豆苗稀. 晨興理荒穢, 帶月荷鋤歸. ……”

72) 陳玉璣, 「墨井草堂詩序」: “吳子漁山以畫名家者也, 又工詩. 其詩一去雕鏤組織之習, 率其自然. 鍾嶸謂陶淵明詩出於應璩, 余謂漁山詩實出於淵明. 雖然漁山直自寫其胸中之景物已耳, 何嘗依倣前人耶?”

는다'라는 詩集名에 부합하는 시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그가 탄식하고 근심한 바가 무엇이었는지, 시로서 기록하고 알리고자 한 바가 무엇이었는지 미루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몇 편의 서문을 통해 오어산의 사람됨과 시의 풍격을 살펴 보았다. 오어산은 古人의 風度를 지닌 인물이었지만 결코 눈앞의 현실을 회피하지 않는 비분강개한 인물이었고, 그의 시는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가슴 속에 켜켜이 쌓아두었다가 거침없이 진솔하게 토로한 '詩史'의 성격을 가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陳玉璫은 오어산의 시는 결코 선인들의 시를 모방하는 당시 시단의 병폐에 물들지 않고, 자신의 가슴속에 일어나는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출해 내는 도연명과 같은 풍격을 가졌다<sup>73)</sup>고 확인하였다.

본문을 통해서도 『寫憂集』에 수록된 시를 '亡國之憂', '哀民之憂', '生活之憂'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오어산이 『寫憂集』을 통해 가장 먼저 드러낸 근심은 亡國이었다. 오어산이 13살이 되던 崇禎18年(1644) 명이 멸망할 때부터 마카오에서 예수회에 입회한 1682년까지도 크고 작은 전란이 계속되어 망국의 근심도 사라지지 않았다. 오어산은 시를 통해 마지막 순간까지 명에 대한 충성을 다하고 순국한 瞿式耜의 죽음을 애도하고 망국의 슬픔을 기록하였고, 文天祥과 謝翱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西臺를 찾아 이민족이 중원을 점령한 십년의 근심을 토로하고, 정성공의 기의군이 가져왔던 희망과 절망을 시에 담아내었다.

만주족이 入關한 이후부터 대만의 정씨정권이 붕괴되는 40여 년 동안 끊임없이 이어졌던 전란은 백성들에게 큰 근심을 가져다주었다. 오어산은 반청복명이라는 명분보다 지긋지긋한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 일상을 되찾고자 하는 백성들의 염원을 시로 표현하였다. 오어산은 시로서 당시 常熟과 江南지역 백성들이 가진 가장 큰 근심은 매년 봄철이면 반복되는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였음을 기록했다. 오어산은 다수의 시를 통해 집과 전답이 모두 물에 잠기는 물난리를 겪는 백성들의 고통과 근심을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남지방에서 진행된 가혹한 세금징수가 야기하는 많은 사회문제 등을 담담하게 시에 담아내었다.

몰락한 명문가의 후예로 태어난 오어산은 儒道를 배우는 선비로, 명의 유민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과장에 나가기를 거부하였다. 별다른 생업수단을 갖지 못한 그는 그림을 팔아 가족을 봉양해야 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객지를 전전하는 고통과, 가족에 대한 근심을 떨칠 수 없었다. 오어산은 시를 통해 가족에 대한 근심과 함께 마음이 따뜻한 가장으로서의 모습을 가감 없이 드러내었다. 또한 세상의 가난한 선비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 자신을 근심하고, 도연명처럼 귀거래사를 부르고 고향으로 돌아가 호미 메고 들에 나가 김을 매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아무런 분쟁도 일어나지 않은 향촌을 건설하고자 하는 염원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본문을 통해 필자는 오어산의 사람됨은 깨끗하고 맑음을 좋아하여 명리를 다투는 당시 사람들보다는 魏晉의 현인들에 가까운 풍도를 지녔다는 동시대인의 평가가 결코 허튼 소리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그의 시는 사회와 시대를 그려내고 투영했던 두보의 '詩史'의 전통을 계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농사 지으며 부지런하게 살아가며 자신의 생활을 진

73) 陳玉璫, 「墨井草堂詩序」: “吳子漁山以畫名家者也, 又工詩. 其詩一去雕鏤組織之習, 率其自然. 鍾嶸謂陶淵明詩出於應璩, 余謂漁山詩實出於淵明. 雖然漁山直自寫其胸中之景物已耳, 何嘗依倣前人耶? 余不善畫而好爲詩, 每遇天地間之可喜可愕者, 輒欣然有觸, 然亦不過象罔之得而已, 何足語於漁山哉!”

실 되고 평담한 어투로 소묘하듯 표현해낸 도연명의 태도를 결합하려고 노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그의 시가 산수화에 가려 빛을 보진 못했지만 오어산의 시는 청나라 초기를 살아가던 유민의 고민과 백성들의 근심과 생활을 白描의 수법으로 그려낸 뛰어난 작품으로 다시 조명되고 평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차후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참고문헌】

-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 上海人民出版社, 2014.
- 吳 歷 撰, 章文欽 箋注, 『吳漁山集箋注』, 中華書局, 2007.
- 周康燮 主編, 『吳漁山(歷)研究論集』, 崇文書店, 1971.
- 章文欽, 『吳漁山及其華化天學』, 中華書局, 2008.
- 孫金富 主編, 『上海宗教志』,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2001.
- 錢謙益, 『牧齋有學集』, 上海古籍出版社, 1996.
- 金學主, 『中國文學史』, 新雅社, 1992.
- 袁行霈 主編, 『中國文學史』, 高等教育出版社, 1998.
- 張少強, 『中國文學理論批評發展史』下卷, 北京大學出版社, 1995.
- 조너선 D. 스펜스, 김희교 역, 『현대 중국을 찾아서 1』, 이산, 2001.
- 미시모토 미오·미야지마 히로시, 김현연·문순실역, 『조선과 중국 근세 오백년을 가다』, 역사비평사, 2004.
- 임계순, 『淸史 만주족이 통치한 중국』, 신서원, 2007.
- [朝鮮]鄭介淸, 『愚得錄』
- Jonathan Chaves, *Singing of the Source : Nature and God in the Poetry of the Chinese Painter W U LI*, University of Hawaii, 1993.
- 金智英, 「錢謙益 詩 연구」, 『中國語文學論集』, 第106號, 2016.
- 최낙민, 「예수회신부 吳漁山의 『三巴集·澳中雜詠』을 통해 본 해항도시 마카오」, 『中國學』, 제43집, 2012.
- \_\_\_\_\_, 「吳漁山の 『三巴集』에 나타난 天學詩研究」, 『中國學』, 제54집, 2016.
- \_\_\_\_\_, 「吳漁山の 죽음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고찰」, 『해항도시문화교섭학』, 제14호, 2016.
- \_\_\_\_\_, 「예수회 신부 吳漁山의 ‘十年海上’ 사목활동과 天學詩 고찰」, 『中國學』, 제59집, 2017.
- \_\_\_\_\_, 「吳漁山の 『三餘集』에 나타난 天學詩 연구」, 『中國學』, 제62집, 2018.

#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吳漁山, 『寫憂集』, 詩史, 亡國之憂, 哀民之憂, 生活之憂		
	영문	Wu Yu-shan, Xieyují, History Poem, National decay of grief, Concerns the people, Cares of life		
<div>A Study of Wu Yushan's Xieyují 寫憂集</div> <div>Choi, Nack-Min</div> <p>This paper attempts to review the Painter Wu Li's poem work in first half year through Xieyují寫憂集. To achieve this goal, the first part of the paper examines Wu's life in the Changshu常熟 and figure out his attitude towards Qing dynasty, one of the two major axes in the missionary works of the Society of Jesus in China.</p> <p>The second part focuses on Father Wu's effort of his missionary work, forgetting how grey his hair turned and crossing the Huangpu River for ten years. In this presentation, Wu Li's pastoral activities on Shanghai will be introduced first through poems in Sanyují三餘集.</p> <p>Father Wu Li, who lived in 17th 18th century, would never have been aware of the progress of globalization. However, Wu Li who became a Catholic priest, can be regarded as a trailblazer in overcoming the tension between the view of Catholic seeking universal values and the view of Chinese intellectuals focusing on Confucianism.</p>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최낙민 / 崔洛民 / Choi, Nack-Min		
	소 속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Em@il	qiushui@kmou.ac.kr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8년 09월 13일	심 사 일	2018년 09월 17일
	수 정 일	2018년 09월 21일	게재확정일	2018년 09월 27일